"국제해양관광도시 만들기 박차…사립 외고 2017년 개교 추진"

민선 6기 2년 설계
주 철 현 여수시장

19개 기업과 5860억 투자 협약
해상케이블카로 지역경제 활기
전라선 폐선구간 문화공원으로

"여수는 국제 해양관광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지난 1년간의 시정에 대해 여수가 국제해양관광 도시로 탈바꿈하는 중요한 시기로 규정했다. 전국 첫 해상케이블카 개통 후 서남해안 최고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 시장은 "시민소통,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냈고 시민참여 소통도시, 지역경제 활력도시, 교육복지 으뜸도시, 문화관광 창조도시, 사람중심 행복도시라는 다섯가지 전략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수시는 지난 1년 동안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설정하고 우수기업 유치에 따른 젊은 일자리 창출과 교육, 의료, 주택 등 정주여건 개선에 힘썼다. 이는 인구 30만명 회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전략이었다.

특히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각계각층 100인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현안 63건의 '시민의 생각'을 반영했다. 'SNS 여수 신문고'는 1만4000여명의 시민들과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주 시장은 직접 49회에 걸쳐 시민 4700여명과 현장 방문대화를 했다.

주 시장은 "참여와 소통은 시 모든 행정의 출발점이 됐고, 시민 이익과 여수미래는 모든 정책 판단의 기준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은 기업투자로 이어졌다. 그동안 19개 기업과 5860억원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또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국가지원 혁신산단으로 지정됨으로써 앞으로 10여년간 35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달 초에는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해 산업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구 유출을 줄이기 위한 시책도 눈길을 끌었다. '교육이 곧 인구 증가'라는 생각으로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2017년 개교를 목표로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학병원' 유치도 범시민 운동을 통해 활발하게 진행하는 등 고급 주거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해 얻어진 SOC(사회간접자본) 및 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 해상케이블카를 개통한 것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또 365개의 섬과 여자만 등 체류형 해양·생태웰빙 관광개발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사계절 '여수 밤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도시 경관조성과 길거리 문화공연 등으로 한층 더 아름답고 흥미롭게 꾸며지고 있다.

이 밖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시민대학 개설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 여수~고흥을 잇는 연륙·연도교 및 여수~남해 간 한려대교 등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한 도시접근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방치돼있던 전라선 폐선부지를 문화공원화 하는 계획을 수립 중이다.

여수시는 민선 6기 2년차를 맞아 '여수 도시비전' 주요 계획을 시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계획이다.

주 시장은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등 그동안 42개 분야에서 상을 받아 12억여원의 상금도 받았다"면서 "앞으로 시민생활 안전과 시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제 컨설팅전문사인 멕킨지는 10년안에 여수가 세계 최고의 부자도시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며 "시민들이 주인으로서 자부심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편리한 도시, 일자리가 넘치는 시민 자족도시를 꼭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도심순환 2층 버스 달립니다…10일 개통

복층으로 된 유럽형 2층 버스가 여수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수시는 "오는 10일 '도심순환 2층 버스' 개통식을 갖고 본격적인 투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통 당일은 하루 동안 무료 시승 이벤트가 열린다.

무료 시승대상은 인터넷 접수와 단체 추천을 통해 모집한다. 인터넷 접수는 8일까지 여수관광홍보 홈페이지(www.ystour.kr)를 통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대별로 7회에 걸쳐 210명의 무료시승 대상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도심순환 2층버스는 유럽에서 제작돼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된 천장 개방형 2층 버스이다. 좌석은 운전석을 포함해 총 72석(1층 10석, 2층 61석)이다. 최신사양을 갖춘 2층 버스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1대가 탑승 가능하도록 저상으로 제작됐다.

운행코스는 천혜의 관광지 여수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여수 엑스포역에서 출발해 아쿠아플라넷→케이블카 주차타워→오동도→엠블호텔→하멜전시관→이순신광장→여객선터미널→돌산공원 입구를 거쳐 다시 여수 엑스포역으로 돌아온다.

도심순환 2층버스는 오전 10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매일 8회 운행한다.

요금은 1일권과 1회권이 있다. 재탑승이 가능한 1일권은 성인 5000원, 경로·유공자·군인·장애인·학생 4000원이다. 1회권은 성인 3000원, 경로·유공자·군인·장애인·학생 2000원이다. 1일권으로 재탑승할 때는 영수증을 제시하면 된다.

운행사업자인 (유)동서관광 관계자는 "2층 버스가 여수의 명물이 되도록 안전운행은 물론 관광객에게 고품격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시체육회·생활체육회 운영 일원화
여수시, 전남 첫 통합체육회 출범

전남에서 처음으로 여수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됐다.

여수시는 지난 2일 시청회의실에서 기관단체장과 체육인,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시 통합체육회' 출범식을 가졌다. 여수시 통합체육회 34개 가맹단체는 6월 16일 대의원 총회와 24일 이사회 등 통합을 위한 법적 절차를 거쳐 이날 '여수시 통합체육회'로 정식 발족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광중 상임 부회장에게 임명장과 통합 체육회기를 수여하고, 천대욱 전(前) 생활체육회장과 이종민 전 체육회 상임 부회장은 고문으로 위촉했다. 그동안 이원화돼 운영했던 양 체육회는 지난 1월에 통합대상 18개 가맹단체장과 통합의 필요성 등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2월에 20명의 체육단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 전남 최초로 자율적 통합을 이뤘다.

통합체육회장인 주철현 시장은 "양 체육회가 배려를 바탕으로 전남 최초 자율 통합을 이룬 전국적 모범사례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단일조직인 통합체육회의 집중된 힘과 추진력을 통해 여수시 체육이 더욱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 통합체육회는 이날 백미 240포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동백원 등에 전달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안개 뚫고 응급이송 해준 여수해경에 감사"

위기 넘긴 거문도 주민이 편지 보내

여수해양경비안전서 대원들이 지난 6월 14일 거문도 응급환자를 후송하기 위해 500t급 경비함에서 50t급 경비정으로 옮겨싣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숨 가쁘게 움직여 생명을 살리려는 일념 하나로 적극적인 행동에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수시 거문도에 사는 주민 이모(57)씨가 6월 14일 복통으로 고흥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응급환자 호송을 한 여수해경에 감사편지를 보냈다.

이씨는 "신장수술후 6년간 하루 4회씩 투석을 해와 복막염증이 생기면 12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살 수 있었다"며 안개주의보로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중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병원으로 이송해준 여수해경과 고흥소방서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병원으로 이송되던 날 이씨는 새벽 4시40분께부터 심한 복통으로 마을주민 도움을 받아 거문 보건지소로 이동하면서 오전 6시 5분 119와 여수해경 상황실에 신고했다.

이씨는 보건소장의 응급처치 후 여수해경 거문안전센터에서 연락을 받고 도움에 나선 민간자율구조선 '돌핀호'(선장 이태정)를 타고 거문도 외항으로 나와 여수해경 500t급 경비함에 올랐다.

500t급 경비함은 원격 의료시스템으로 여천 전남병원 의사와 정보교환을 하면서 전속으로 이동해 손죽도 인근 해상에서 나로도 축정항에 입항할 수 있는 크기의 50t급 경비정에 이씨를 인계했다.

50t급 경비정도 원격 의료시스템을 가동해 체온이 38.9도까지 올라간 이씨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의사와 정보교환하며 오전 8시 40분 나로도 축정항에 도착해 고흥군 봉래119구급차에 이씨를 인계했다.

위기를 넘긴 이씨는 대전의 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는 중 섬마을 응급환자 이송에 최선을 다한 여수 해경과 고흥소방서 관계자들에게 편지를 통해 고마움을 전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